

##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다”

글 조영주 작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28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 요셉의원의 이문주(오른쪽) 원장신부와 함께했다.



심사 과정을 설명하는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과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제28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단지에 자리한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흥구·이춘림·장정자·이상주·한승주·김유후·정진규·김태현·이병규·이봉주·최재성 이사와 최종원 감사 등 아산재단 임원, 2015년 아산상 사회봉사상 수상단체인 한국생명의전화 하상훈 원장 등 역대 수상자와 박정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등 내빈, 수상자와 가족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가족사랑과 나눔정신을 실천한 이들을 매년 발굴해 시상하면서 정주영 설립자가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했던 인간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아산상은 대상인 아산상과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특별상·복지실천상·자원봉사상, 그리고 효행·가족상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상한다. 상금은 아산상 3억 원, 의료봉사상·사회봉사상·특별상은 각 1억 원이고, 나머지 부문은 각각 3천만 원이다. 올해는 아산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상 수상자(단체)가 없어서 6개 부문의 수상자 12명(단체)에게 총 7억7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제28회 아산상은 지난 6월부터 각 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재단 사무처가 발굴한 241건의 후보에 대해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본심사와 심사위원단 추가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데 이어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병규)와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흥구)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 “사회의 그늘진 곳 줄이겠다”

시상식은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11p. 상자기사 참조)에 대한 시상식과 주요 상 수상자(단체)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주요 상 수상자의 수상소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선친께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병고와 가난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다. 병치레 때문에 가난하고,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속 아파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가난해진다. 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1977년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다. 선친께서 태어나신 지 101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에 훌륭하신 분들에게 아산상을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말한 뒤 아산상 수상단체인 요셉의원에서부터 효행·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된 전순래 씨까지 12명(단체)의 공적과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몸과 마음이 위축되기 쉬운 요즘의 사회 분위기이지만, 우리 주위에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설립 40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산상 대상은 무료 자선병원인 요셉의원(관련기사 12~15p.)이 수상했다. 서울 영등포에 자리한 요셉의원은 봉사자 7백여 명과 후원자 8천여 명의 도움을 받아 29년 동안 60만여 명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알코올중독자, 외국인노동자



수상 소감을 전하는 수상자들. 왼쪽부터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 요셉의원의 이문주 원장신부, 의료봉사상 수상자 박종철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사회봉사상을 받은 한국 SOS어린이마을의 허상환 부분부장.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진료해왔다.

요셉의원의 이문주(78) 프란치스코 원장신부는 “요셉의원은 1987년 개원 이래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무료 진료에 매진해왔고, 자활 의지를 상실한 환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해 치유인문학 강의 등의 강좌를 열고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단순한 신체적 진료를 넘어 정신적 치유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실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의료봉사상에는 51년간 국내외 뇌전증(간질) 환자 치료에 전념한 박종철(83) 원장(박종철신경정신과의원)이 선정됐다(관련 기사 16~19p.). 국내 뇌전증 환자를 위한 봉사뿐 아니라 네팔 뇌전증협회 설립과 한국생명의전화 및 자살예방협회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은 박 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훌륭한 동료들을 만나고 수많은 뇌전증 환자들의 삶을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어서 보람이 컸다. 이 활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네팔을 시작으로 중국과 북한 등 해외로 봉사의 영역을 넓혔다”면서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뇌전증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상에는 아동 보육시설인 한국SOS어린이마을(관련 기사 20~23p.)이 선정됐다. 1963년 대구에 처음 설립된 뒤 서울과 순천에도 시설을 건립한 한국SOS어린이마을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해 돌본다. 일반 아동복지시설과 달리 수련과정을 거친 여성이 ‘엄마’가 되어 한 가정을 맡아 정년퇴임까지 운영하고, 아이들끼리는 형제자매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이런 독특한 운영은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기여하고 새로운 아동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상환(56) 한국SOS어린이마을 부분부장은 “우리는 가정을 잃은 어린이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되는 어린이들이 없도록 사회를 일깨우고, 우리 어린이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인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 아산재단의 설립취지를 실천

복지실천상은 김수옥(54), 서혜미(51), 송규상(56) 씨 3명이 수상했다.

전남 나주에 자리한 성산원 물리치료사인 김수옥 씨는 11년 동안 장애인들이 스포츠 참여를 통해 도전 정신과 자활 의지를 갖도록 지원해왔다. 서울 하상장애인복지관의 서혜미 사무국장은 복지서비스 개발과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29년간 장애인 권익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충남 논산의 아동보육시설인 논산애육원의 송규상 사무국장은 37년간 근무하며 800여 명의 아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헌신한 노고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상은 가톨릭의대 성우회와 배재영(56), 한경희(58) 씨가 받았다. 성우회는 가톨릭의대 학생을 주축으로 39년간 의료봉사를 실시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했고, 배재영 송실대 음악원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 개최와 음악 교육을 통해 24년간 장애인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해왔다. 경찰관 출신인 한경희 씨는 본인의 간암 투병과 아들의 장애 등 역경을 극복하고 ‘바우네밴드’라는 가족밴드를 만들어 18년간 요양원 등에서 공연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효행·가족상 수상자로는 신창한(54), 임종순(50), 전순래(57) 씨가 선정됐다.






①시상식이 열린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로비에서는 수상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다. ②참석자들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③이홍구 아산재단 이사와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박종철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사회봉사상을 받은 한국SOS어린이마을의 허상환 부분부장(왼쪽부터). ④복지실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상은 김유호(왼쪽 끝) 아산재단 이사가 해주었다. 오른쪽부터 송규상 논산애육원 사무국장, 서혜미 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수옥 성산원 물리치료사. ⑤자원봉사상 시상 뒤. 오른쪽부터 한경희 봉사자, 가톨릭의대 성우회 백선호 대표학생, 배재영 숭실대 음악원 교수, 이봉주 아산재단 이사. ⑥김태현(왼쪽) 아산재단 이사가 효행·가족상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전순래, 임종순, 신창한 수상자.

경북 영양에 거주하는 신창한 씨는 32년간 노모와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헌신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룬 공적을 인정받았다. 임종순 씨는 대전시 동구에 살면서 26년간 자폐장애가 있는 딸의 양육에 힘쓰는 한편 만며느리로서 가족에게 헌신해왔고, 경기도 성남시의 전순래 씨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거동이 어려운 시동생을 23년간 헌신적으로 돌보는 등 화목한 가정을 이끌어왔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는 일찍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도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그리고 차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이

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고 말했다. 2016년 제28회 아산상 수상자들은 설립자가 추구한 일들을 몸소 실천한 분들이고, 아산재단은 그런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을 참으로 잘 찾아내서 격려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28회 아산상 수상자** • 아산상 요셉의원 • 의료봉사상 박종철 원장 • 사회봉사상 한국SOS어린이마을 • 복지실천상 김수옥(성산원 물리치료사) 서혜미(하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송규상(논산애육원 사무국장) • 자원봉사상 가톨릭의대 성우회(대학생 의료봉사단체) 배재영(음악지도 봉사자) 한경희(음악공연 봉사자) • 효행·가족상 신창한(경북 영양) 임종순(대전 동구) 전순래(경기 성남)